

第11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8月30日(木) 午前 11時07分 開式

第114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11時07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경애(敬愛)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19만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盧張鐸 副區廳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막바지 늦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덥고 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1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한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끼지며 오곡백과가 한창 영글어 간다는 절기상 처서(處暑)도 지나 이제는 일 하기 좋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름내 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 연초(年初)에 계획하였던 구정(區政)의 주요사업과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없는지 등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휩쓴 37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라는 최악의 물난리로 고귀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가 한사람의 인명 희생은 물론, 별다른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재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수해(水害)에 대비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동안 꾸준하게 재해(災害)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구축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저지대 지역의 주택 및 상가 침수 발생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좀더 철저한 사전점검과

이에 따른 대책들이 강구되었다라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영세한 상인들의 재산손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적어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주민편의 및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도시지역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생활복지공간으로 전환되어 문화편익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또한, 한정된 민원서류 발급과 민방위·사회복지업무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유지하고 있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인 건축·세무·토목 등은 모두 구청으로 이관(移管)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무소 기능이 갑작스럽게 바뀌지면서 예전에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들이 구청까지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구청 또한 업무과다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재난시 신속한 대처와 청소·가로정비 등과 같은 현장민원행정의 신속대응이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야기(惹起)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구청으로 이관한 결과 업무효율성이 동사무소에서 처리 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관련민원도 오히려 늘어나 청소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한 자치구가 여럿 있고 조만간 종전대로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넘길 예정인 자치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구청의 행정력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준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즉시 시정 또는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무소 민원업무와 주요 기능들이 다시 환원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의회 마지막 원(院)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14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우리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구정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의정활동도 주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성숙된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항상 화합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신뢰받는 의원상이 주민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제114회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와 접수된 안건들을 심사·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들 안전 중에서는 본인이 의장 취임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말씀드린 현재 1년 임기제인 상임위원회 임기를 다음 4대의회 때부터 의장단 임기와 동일하게 연결하여, 2년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9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9월에도 예상치 못하는 집중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절개지·공사장 또는 저지대와 같은 수해 취약지역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해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대의회 제4기 원 구성 후 첫 회의인 만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14회 종료 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21分 閉式)

○出席議員數 18人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保 健 所 長 李星世

